

성도의 교제 |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 가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림

1. 실만한 물가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1517년 10월 31일) 50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 2023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향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3. 후보 안면에 있는 말씀 노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문의: 김윤규 목사

5. 창립 1주년 감사 예배: 11월 5일 3시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 김인철 목사님, 토론토 소금과 빛 영광교회)

6. 손금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7. Daylight Saving Time 해제: 11월 5일 오전 2시 => 오전 1시

8. 시편 107편 1절 (2023년 10월 성경 암송 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톡 채널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묵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4장 (통 4)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4. 시편 24편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오직 믿음으로 /
주께 가오니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325장 (통 359)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Romans) 1:17

인도자

설교 Sermon

김윤규 목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which is revealed in the Gospel

*찬송 Hymn

438장 (통 495)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말씀 노트 ||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 설만한물가교회의 창립 정신은 로마서의 말씀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5-57 년경 3 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해서 로마에 있는 가정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이 굳건해 지기를 원했습니다.

2.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롬 1-8 장)

둘째,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9-11 장)

셋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2-16 장)

3. 복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4. 로마서 1 장 1-4 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세가지 특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셋째, 복음을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5.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복음의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7.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은 ‘의로움’(δικαιοσύνη)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의로움’이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언약적 개념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윤리적으로 완벽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에 맺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8. ‘의로움’이라는 헬라어 명사를 히브리어로 생각해 보면 ‘체덱’(צדק)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9. 구약 성경에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언약적으로 올바른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38 장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해석이 어려운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유다의 첫째 엘이 죽은 후에 고대 근동 사회의 풍습이 수혼 제도에 의해서 가족 중의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다말은 유다의 집안에서 대를 잇겠다는 의무감에 충실해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모습으로 유다를 속여 임신을 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유다는 수혼 제도라고 하는 의무를 불성실하게 했고, 다말은 대를 잇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창 38:26)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표현에서 “옳도다”(נָתַן)는 표현은 윤리적으로 올바르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말이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 곧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10.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하박국 2 장 4 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하신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집니다.

(고전 1: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